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푸른 도화선

동네와 어우러진 곳. 고깃집 문 앞에는 연탄재가 켜켜이 쌓여 있다. 화가들이 전시를 마련한 뜻은 이태원에서 자유를 꿈꿨던 희생자들의 '푸른 청춘'을 기억하고 치유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다. 추모전 이름은 영국 웨일스 시인 딜런 토머스의 '푸른 도화선 속으로 꽃을 몰아가는 힘'이라는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 시의 첫대목이다. '푸른 도화선 속으로 꽃을 몰아가는 힘/푸른 내 나이 몰아간다. 나무들의 뿌리를 사들게 하는 힘이/나의 파괴자다./하여 나는 말문이 막혀 구부러진 장미에게 말할 수 없다./내 청춘도 똑같은 겨울 열병으로 굶어졌음을.'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내렸다. 3번 출구로 나와 우사단로10길로 꺾이는 길어귀로 접어들었다. 이슬람교 중앙성원까지는 구불구불 완만한 오르막길이었다. 화려하게만 보이던 이태원의 풍경은 갈수록 추레해졌다. 도로에는 할랄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가 늘어섰다. 16명의 화가들이 10·29참사 추모전 '푸른 도화선(Green Fuse)'을 열고 있는 전시장으로 가는 길. 여기서부터는 꼬불꼬불 완만한 내리막이다. 낯선 외국어 간판을 단 이국풍의 식당과 술집들이 한국의 산

를 지배하려는가. 이 공포를 정치인들이 없애 주리라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유족들이 흐느꼈다. 그들의 절규와 항의는 곧 추위와 어둠 속에 묻혔다. 분향을 끝낸 사람들은 시민추모제가 열리는 이태원역을 향해 길을 이어 걸었다. 무대 위 스크린 속 검푸른 밤하늘에는 별들이 외치고 있었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별 하나, 별 둘 추억의 영상과 함께 희생자의 이름이 불렸다. 49일이 지나면 망자는 이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고 산 자는 산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왜 죽었는지 해명이 되지 않으면 죽은 자는 귀신이 돼 구전을 해매고 산 자는 한을 품는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한다. 한번 불붙은 도화선의 불꽃은 뇌관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을 지배하려는가. 이 공포를 정치인들이 없애 주리라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유족들이 흐느꼈다. 그들의 절규와 항의는 곧 추위와 어둠 속에 묻혔다. 분향을 끝낸 사람들은 시민추모제가 열리는 이태원역을 향해 길을 이어 걸었다. 무대 위 스크린 속 검푸른 밤하늘에는 별들이 외치고 있었다.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별 하나, 별 둘 추억의 영상과 함께 희생자의 이름이 불렸다. 49일이 지나면 망자는 이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고 산 자는 산 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나 왜 죽었는지 해명이 되지 않으면 죽은 자는 귀신이 돼 구전을 해매고 산 자는 한을 품는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한다. 한번 불붙은 도화선의 불꽃은 뇌관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사설

'핵전력 제주 배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해 제주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미국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지난 26일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북핵 위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특히 보고서에는 미국의 핵전력을 한 곳에 전진 배치할 경우 거리를 고려하면 제주도가 최적이라고

편집국 25시

감귤의 변신



부미현 정치부 차장 bu8385@halla.com

지난 12월 1일 서울에서 열린 감귤데이 행사 취재 뒤 이동하는 길에 지하철을 기다리며 감귤을 나눠 먹고 있는 젊은이들을 봤다. 기자는 그 순간 감귤 말고 장소 불문 언제든 쉽고 편하게 주머니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과일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귤은 휴대성, 보관의 편리성, 손으로 꺾질만 벗기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섭취의 용이성까지 다른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같은 감귤의 우월성을 무시하게 지나친 것은 아닌지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다.

감귤 유통 관계자들은 제주도와 감귤 농가에 앞으로 젊은 세대와 여성들의 소비 트렌드를 간파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가성비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특별한 장점이 있는 상품엔 아낌없는 소비를 한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여러 과일과의 경쟁에서 감귤이 당도뿐 아니라 차별화할 수 있는 다른 매력을 찾아야 할 때다. 한 유통버가 감귤 껍질을 재미난 모양으로 잘라 구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사례가 있다. 디자인이 가미된 감귤 껍질을 보는 재미, 감귤데이에 다채로운 포장으로 눈길을 끄는 감귤을 연인에게 선물하는 모습. 상상만으로 즐기던 감귤의 저력이 너무 아깝다. 감귤 한 개를 팔더라도 감귤이니까 가능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에 감귤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없었던 '힙(고유한 개성과 감각을 가진 최신 유행)'한 감귤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지.

뉴스-in

"각종 행사 집중 연말연시 안전한 제주를"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주문 23년째 선행 '노고록'씨 화제 ○...강병삼 제주시장은 28일 열린 올해 마지막 주간간담회의에서 연말연시 안전한 제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 강 시장은 이날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연말연시인 만큼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제주를 만들자"며 "시 단위 행사 개최 시 반드시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시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

23년째 선행 '노고록'씨 화제 ○...일명 '노고록'씨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 쌀 10kg 100포(약 300만원 상당)를 지난 27일 서귀포시 서흥동주민센터에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할. 28일 서흥동에 따르면 '노고록'씨는 매년 3회(설, 추석, 연말연시)에 걸쳐 23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후원활동을 전개. 오영란 서흥동장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매년 익명으로 남긴 메모에는 '사람 시난 흔해가 감수다. 새해에도 노고록하게 보낼께'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어 '노고록'씨임을 짐작하게 했다"며 "기부자의 뜻에 따라 독거노인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언.

시장 화재 대비 허술, 행정은 어디 있나

도내 전통시장이 화재 취약에도 대비를 허술하게 해 충격적이다. 오래된 건물로 꽉 찬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시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도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국 최악이다.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를 지원하는 실정이라 행정의 무대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비율 조사결과 제주선 올 9월 기준 점포 3711개(2020년 기준) 중 고작 648개 가입률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16.7%)에 이어 두 번째로 최저수치다. 17개 광역 지자체중 12개 지자체가 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을 늘리려 공제료를 지원하는데도 제주 등 5개 지자체선 공제료 지원을 안는 것도

문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제로 미지원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정도다. 도내 전통시장 화재가 작년 제작년 5건일 만큼 지속 발생하고, 민간보험 가입도 쉽지 않은 데다 화재안전망 구축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다. 도정이 전통시장 화재 취약성을 알면서도 전국 최악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점포가 많아 공제 가입이 낫지만 사업자등록 활성화 방안도 행정서 챙겨야 할 몫이다. 전통시장 화재는 낫다하면 급격한 연소로 많은 사상자와 큰 재산피해를 내는 만큼 예방책 못지않게 사후 대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도가 전국 최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이루도록 조기 대책에 나서야 한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I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소송자료 찾어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택배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중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 탐나는봉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카라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래(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상품중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하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을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 010-7301-7737